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선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별사랑방 전체교사모임이 오후 1시30분 아브라함 장막에서 있습니다.
- 지난 12일(금) 교육관 증축 준공 승인이 되었습니다.
- 멋쟁이학교 4학년이 10주간의 해외문화체험을 끝내고 13일(토) 귀국하였습니다.
- 어린이학교 6월 여행이 15일(월)~16일(화)에 경기도 용인에서 있습니다.
- 한공협 서울경기강원 네트워크 모임이 15일(월) 춘천 예수마음교회에서 모입니다.
- 한공협 에제르 모임이 16일(화)~17일(수) 광명 조이가든 공동체에서 모입니다.
- 교회 밖 현장실천으로 신대원 2학년 학생들이 18일(목)~20일(토)까지 방문합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 워크샵이 20일(토)에 있습니다.
- 멋쟁이학교 1학기 학부모 모임이 다음 주일(21일) 오후 3시에 모입니다.
- 지난 선교바자회는 수익금 정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익금은 교육관 증축과 시설보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한호남 · 정승희 집사 가정 (감사)
김기환 · 차현주 집사 가정 (감사)
박광희 목사 · 이근자 사모 가정 (감사)
이동환 · 정다운 전도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농협(학교후원회계좌) 사랑방공동체학교(정태일) 351-1165-8216-4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3 - 24 호

2026년 6월 14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당신이 있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인사말입니다.

몇 주 전, 요로 결석으로 인한 급성 신우신염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요관이 막힌 상태라 급하게 왼쪽 옆구리에 구멍 뚫어 신장에 관을 넣는 시술을 받았고, 내시경 수술로 결석을 제거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사라질 것을 기대했지만, 협착을 방지하기 위한 요관 부목으로 또 다른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3주간에 통증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통증 때문에도 너무 괴로웠지만,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한 것은 바로 큰 일들을 진행하는 중에 갑자기 모든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방공동체 학교 연합바자회를 앞두고 벌어진 상황이라 더욱 그랬습니다. 바자회 특성상 많은 일들이 있고, 진행팀에서 전체를 꾸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탁구대회와 자연예배도 예정되어 있었고, 멧쟁이 학년별 여행도 준비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 불안하고, 미안하고, 불편했습니다.

이런 중에 카톡! 바자회 진행팀 방에 “급하게 투입되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라는 조민아 선생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혀 부족하지 않게 척척 저 대신 멧쟁이담당 일들을 해나가셨습니다.

걱정했던 늘푸른들의 자연예배 점심식사는 부장 집사님께서 맛있는 음식으로 푸짐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많은 분들의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나아서 담당해주는 많은 식구들이 계셨습니다. 오히려 다들 아무 걱정 말고 치료에 전념하고 이참에 푹! 쉬라는 당부까지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하던지요. 걱정과 근심 그리고 불편한 마음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는 “괜찮아요?” 라는 묻는 인사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이 있어 괜찮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452장, 582장

성 경 :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 씬 : 분열을 그치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지진으로 피해입은 필리핀지역을 위해>

6월8일에 발생한 큰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들의 골든타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필리핀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편을 나누고 분열하는 이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1) 몸과 마음이 아파 회복과 치료 중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나들이와 여행 중에 있는 꾸러기학교와 멧쟁이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보리수가 한창인 요즘입니다. 초여름 햇살에 꽃들이 만개하여 공동체 마당은 꽃 천지가 되었습니다. 멧쟁이들이 여행을 간 사이에 교육관 중층에 자료 보관실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영농부에서는 매일 밭의 작물들을 돌봐주셔서 이제는 수확의 기쁨을 한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꾸러기 공주님들은 모두 대단한 댄서입니다. 음악이 나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를 사용하여 춤을 춥니다. 그것도 각각 표현하는 방법, 장르, 기교가 다 다릅니다. 음률놀이 시간에 다양한 여름 음악을 들으며 몸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에 꾸러기들의 화려하고, 우아한 기교를 맘껏 뽐냅니다. 공주님들의 자유로운 몸짓은 옆에 사람도 아주 흥나게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만을 사용하면서 환경문제 대해 알려주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다녀왔습니다. 태양광, 지열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자연에 피해를 주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좋은 환경운동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환경 문제가 어느 한 동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문제이고,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힘 들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센싱더스토리 예수님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인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말씀도 외우고, 이야기도 들으며 아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꾸러기들이 씩씩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매년 6월에는 평화교육과 환경교육 시간을 번갈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평화교육 차례여서 수요일 LTSS 시간에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독일의 아동문학가 구드룬 파우제방의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책에서 이야기 한 편을 같이 읽고 ‘친절’과 ‘배려’가 평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이 친구들은 언제 평화롭다고 느끼는지 써보기도 했는데요. 어떤 친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평화를 느끼고 누군가는 혼자 있을 때 평화를 느낍니다.

함께 있을 때 그런 친구는 외동이고 혼자 있을 때 그런 친구는 다둥이 가정이어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어떤 친구는 좀 시끄러운 게 평화롭고 어떤 친구는 조용할 때나 혼자 이어폰 끼고 있을 때 평화롭습니다. 그 외에 학교생활 할 때, 친구들과 놀 때 평화를 느끼는 친구들도 여럿 있었고, 가족들과 여행, 캠핑을 가거나 엄마 아빠와 오붓한 시간을 보낼 때가 평화로운 친구들도 여럿 있었어요. 책 읽을 때, 그림 그릴 때, 음악 들을 때, 예배드릴 때 등의 답변 외에도 청소한 후에, 교실에 벌레가 없을 때, 조용히 문제 풀 때, 숙제를 다 끝냈을 때 같은 답들도 공감가고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언제 평화로운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번 기회에 ‘나’와 ‘우리’의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보는 6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 화요일에 있을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여행도 평화롭기를! 중보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멋쟁이 모두가 기대하던 학년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소에는 모든 학년이 서로 섞여 지내지만, 오롯이 동갑내기들과 고유한 경험을 가지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1학년은 주로 학교에서, 2학년은 인천을 중심으로 갯벌과 바닷가를, 3학년은 자전거로 서울 횡단을, 5학년은 가평 방향에서 물과 친해지기를, 6학년은 포항에서 낚시도 하고 6년을 돌아보며 깊은 이야기도 나누는 등, 모두가 좋은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그 밖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모두 햇빛에 조금씩은 탄 채로 귀환했다는 것이겠네요.

토요일에는 최기찬 선생님과 4학년이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멋쟁이들은 한 층 더 멋지게 되어 있었고, 애타게 기다리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뜨거운 포옹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기도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물놀이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한층 그릇의 폭을 넓혀주는 멋진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히브리서 12 : 25-26, 28 인도자

21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고백의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

요한복음 3 : 17 인도자

273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성가대 찬양

설 교

역대지상 15 : 1-3, 25-29 설교자

586 비움사랑방

“ 춤추는 다윗 왕과 같이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456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임상희 전선희 / 봉헌위원 : 박경희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신우 김보경 진나우 이흥인 정아인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를 통해 연단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저희가 인격과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춤추는 다윗 왕과 같이

뜻밖의 실패. 다윗 왕은 자신의 성공과 모든 번영이 하나님
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이 모인 중에 웃사가 즉
사하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큰 실패와 두려움 속에 모든 일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윗의 대처. 실패는 우리의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사울 왕은 실패 앞에서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였지만 다윗은 실
수를 인정하고 말씀을 깊이 되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춤추는 예배. 철저한 준비 끝에 재개된 언약궤의 입성은
온 백성의 기쁨과 찬양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반면 사울의 딸 미
갈은 높은 왕궁 창문 뒤에서 축제를 비판하고 냉소하는 방관자로
남았습니다. 냉소를 깨뜨리고 상처와 소외를 넘어 주님 앞에서 기
쁘게 춤추며 신앙의 역사 한 가운데로 뛰어드는 삶이 되시기를 바
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김이레 집사

한주간의 말씀

“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
< 역대상 15장 2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35 392 / 210

기도 :

성경 : 역대상 22 : 2-19

제목 : 다윗의 성전건축 준비

1.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6-10>

- 1) 주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What)
- 2) 성전건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어야 한다.(Why)
- 3)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How)

2.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란다 <11,16>

- 1)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What)
- 2) 성전건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Why)
- 3) 성전건축,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며 행하십시오.(How)

3. 율법을 지키며 행하라 <12-15>

- 1)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What)
- 2) 성전 건축을 성공하려면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Why)
- 3) 성전건축은 율법-믿음의 법을 따라 행하십시오.(How)

작년 11월 허리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나에게 협동조합 동료들이 달리기하면 허리가 좋아진다고 함께 뛰자고 권유해왔다. 허리통증만 줄어든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에 함께 달리기를 시작했다.

사실 내가 제일 못하는 운동이 오래달리기였다. 중고등학교 시절 체력장 만점이 3분 39초였다고 기억하는데 나는 6년 동안 수분 안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최고 기록은 4분 10초. 15명이 뛰면 13등정도, 축구를 해도 뛰는 게 힘들어서 골키퍼를 보았다. 군에 입대할 때도 구보가 가정 걱정이었다. 입대 전에 낙오되는 것이 두려워 틈틈이 달리기를 연습하고 입대했다. 이런 내가 달리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었다.

마침 포천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서 주로 포천고 운동장에서 달렸고 가끔 대진대학교, 추운 날에는 트랙을 비닐하우스를 해능은 종합운동장에 가서 달리기를 했다. 요즘은 일요일에는 포천천 천변에서 달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포천고등학교에서 달린다. 처음에는 한 바퀴는 달리고 한 바퀴는 걸었다. 그 다음에는 15분을 달리고 15분은 걷고, 20분 달리고 10분은 걷고 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늘려갔다. 한 발 한 발 달릴 때마다 골반에 통증이 전해져왔다. 20분정도를 달리면 통증이 줄어들었다. 일주일에 세 번 30분에서 50분정도를 달렸다.

스스로 세뇌시키려고 달리기에 대한 유튜브도 많이 본다. 유튜브를 보다보면 달리기를 안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달리기가 묘하게 중독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못 달리면 혼자서라도 달린다. 요즘은 크게 힘들지 않게 30-40분 정도를 달린다. 허리 통증이 많이 줄었고 삔뚫어진 허리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트레칭을 20분정도하고 하루에 매달리기를 두 세 번 한다. 몸이 아프니 관리하고 조심한다. 몸에 적당한 병 하나쯤 달고 사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닌 듯싶다. 주변 친구들이나 선후배를 만나면 어디 한 곳 안 아픈 사람이 없다. 허리나 관절이나 면역력저하나. 건강에 더 많은 투자를 할 때가 왔다. 새싹사랑방 한호남 집사

미국 뉴욕 청년들은 왜 성당으로 향하는가

최근 뉴욕에서 청년들의 미사 참석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서 미국의 교회와 언론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반 언론이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등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을 단순한 문화적 유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의 영적 갈망과 공동체에 대한 필요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을 단순히 가톨릭이 SNS를 잘 활용했거나 젊은 이들의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대응했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상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외로움과 공동체 해체,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안 속에서 청년들이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고, 성당이 그 갈증을 채워주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6 한국교회 Z세대 트렌드' 공동저자인 김선일 교수(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는 자신의 SNS에 "한국의 MZ세대 사이에서 불교 르네상스가, 미국에서는 가톨릭 열풍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원인을 단순히 SNS 활용이나 '힙한' 이미지에서 찾는 것은 피상적인 접근"이라며 "종교가 가진 고유한 영성과 초월성 없이 문화적 유행만 따라가는 것은 오히려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가톨릭과 불교가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는 이유로 "종교 본연의 상징성과 초월성을 유지하면서도 수평적 소통에 열려 있는 역설적 매력"을 꼽았다. 그는 "가톨릭의 성당 건축과 예전, 불교의 사찰과 수행 문화는 현대인들에게 일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초월적 경험을 제공한다"며 "반면 개신교는 세상과 소통한다는 명분 아래 종교만이 줄 수 있는 고유한 상징성과 신비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교와 섬김

한국의 경우 최근 들어 불교가 젊은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문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템플스테이, 뉴진스님 콘텐츠, EDM 불교 행사, 로봇 승려의 연등행사 참여 퍼포먼스 등은 종교에 대한 거부감의 장벽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불교가 젊은 층의 눈길을 끌거나 미국 뉴욕의 청년들이 성당으로 모여 든다는 이유로, 조바심을 내고 억지로 외형적인 이벤트를 따라하는 것보다 말씀과 성례, 기도와 공동체, 침묵과 찬양, 고백과 섬김이 함께 어우러지는 더 깊고 풍성한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난해 말 목회데이터연구소와 기아대책이 공동 발간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서도 '서로 돌봄 공동체'를 주요한 교회 트렌드로 꼽은 바 있다. '서로 돌봄 공동체'의 골자는 '프로그램 중심 교회에서 관계 중심 교회로의 전환'이다. 이 주제가 꼽힌 배경으로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많은 행사, 화려한 프로그램, 큰 건물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내 어려움을 들어주는 공동체, 아플 때 찾아와 주는 교회, 함께 기도해 주는 관계망이라는 분석이 자리한다.

세속화된 시대에도 청년들은 단순한 예배 형식이나 콘텐츠, 얕은 수준의 즐거움이 아니라 공동체, 소속감, 의미, 관계를 교회에 바라고 있다. 뉴욕 성당의 청년 증가는 결국 교회가 제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 이벤트가 아닌 관계,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 지면관계상 중략하여 발췌한 기사입니다.

<2026년 6월 12일 한국 기독교보 표현모 기자>